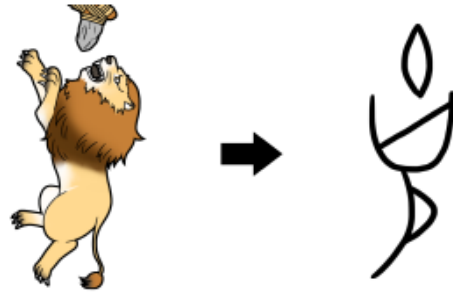


3(2)
-
61

상형문자 ①



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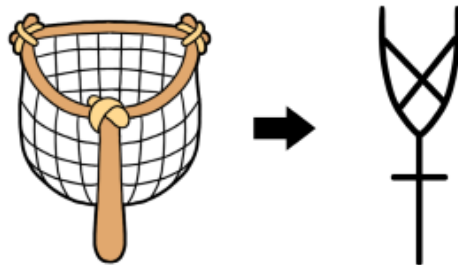
이길 극

克자는 '이기다'나 '참고 견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克자는 十(열 십)자와 兄(맏 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克자의 갑골문을 보면 맹수가 입을 벌려 돌도끼를 으스러트리려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승리를 거두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상대의 돌도끼를 이빨로 으스러트리려는 모습을 통해 '제압했다'나 '이기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이것이 후에 문자화되는 과정에서 十자와 兄자가 결합한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62

회의문자 ①



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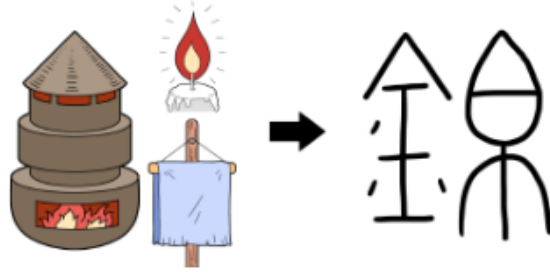
새 금

禽자는 '새'나 '날짐승'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禽자는 隹(이제 금)자와 囟(흥할 흥)자, 肉(발자국 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禽자에 쓰인 囟자는 들짐승을 잡는 덫을 그린 것으로 '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여기에 짐승의 발자국을 그린 肉자까지 있으니 禽자는 짐승을 잡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禽자를 보면 단순히 그물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날짐승을 잡는 도구를 그린 것이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隹자가 더 해지면서 발음역할을 하게 되었고 소전에서는 그물대신 囟자와 肉자가 쓰이면서 지금의 禽자가 되었다. 의미 역시 '(날짐승을)포획하다'에서 단순히 '날짐승'만을 뜻하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63

회의문자①



錦

비단 금:

錦자는 '비단'을 뜻하는 글자이다. 비단은 고대 중국의 주요 무역품으로 황실에서는 직조법을 극비로 삼을 만큼 귀한 제품이었다. 錦자는 그 비단 중에서도 가장 좋은 비단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錦자는 金(쇠 금)자와 帛(비단 백)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이미 帛자가 '비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金(쇠 금)자를 넣은 錦자를 따로 만든 것일까?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순수한 비단을 뜻하는 帛자에 金자를 결합한 것은 비단에 수를 넣고 금박을 붙였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帛자나 錦자 모두 '비단'이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錦자는 이보다는 더 좋은 '고급 비단'을 뜻한다.

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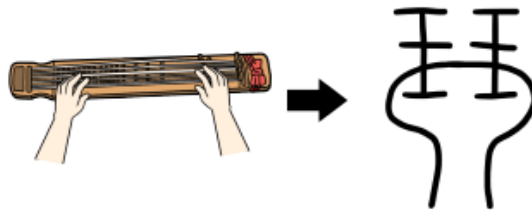
소전

錦

해서

3(2)
-
64

상형문자①



琴

거문고
금

琴자는 '거문고'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琴자는 두 개의 玉(옥 옥)자와 今(이제 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今(이제 금)자는 '이제'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琴자는 우리의 거문고와 같은 중국의 현악기를 뜻하는 글자이다. 소전에 나온 琴자를 보면 두 개의 玉자 사이로 줄이 둘러 있는데, 이것은 거문고에 있는 '괘'와 '줄'을 함께 표현한 것이다. 지금은 거문고에 있던 줄이 今자로 바뀐 것이다. 그러니 琴자에 있는 玉자도 '옥'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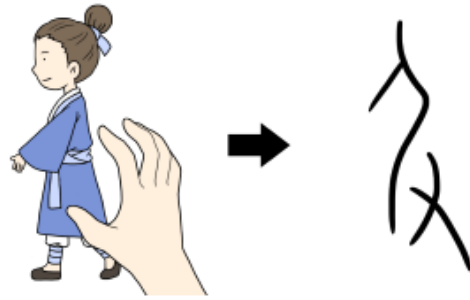
소전

琴

해서

3(2)
-
65

회의문자①



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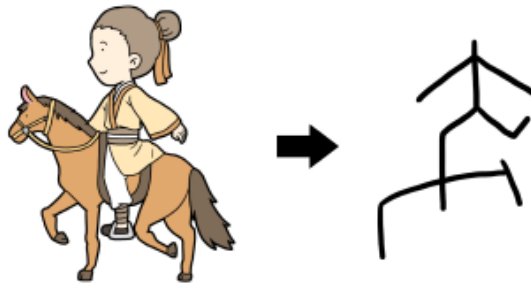
미칠 급

及자는 '미치다'나 '이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미치다'라는 것은 어떠한 지점에 '도달하다'라는 뜻이다. 及자의 갑골문을 보면 人(사람 인)자에 又(또 우)자가 그려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붙잡으려는 듯한 又 모습이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다다르고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及자는 '미치다'나 '이르다', '도달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66

상형문자①



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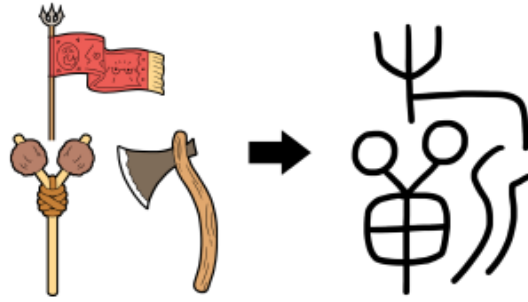
말탈 기

騎자는 '말을 타다'나 '걸터앉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騎자는 馬(말 마)자와 奇(기이할 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奇자는 마치 사람이 곡괭이 위에 올라가 있는 듯한 모습을 그린 것이다. 騎자는 이렇게 사람이 곡괭이에 올라간 모습을 그린 奇자에 馬자를 결합한 것으로 사람이 말 위에 올라탔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騎자를 보면 단순히 말 등에 올라탄 사람만이 奇 그려져 있었다. 말이 획 하나로 생략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말 위에 올라탄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奇자가 발음과 함께 올라탄 모습을 표현하게 되면서 지금의 騎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67

회의문자①



祈

빌 기

祈자는 '빌다'나 '기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祈자는 示(보일 시)자와 斤(도끼 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斤자는 도끼를 그린 것이다. 그런데 금문에 나온 祈자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였다. 금문에서는 깃발 아래로 單(홀 단)자와 斤자가 함께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깃발 아래로 무기들을 늘어놓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전쟁이나 사냥에서의 성공을 빈다는 뜻이다. 후에 소전에서는 뜻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示자가 더해지면서 지금은 祈자가 '기원하다'나 '빌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金文

小篆

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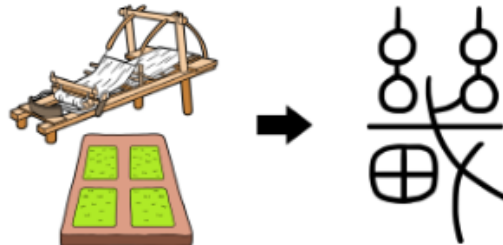
금문

소전

해서

3(2)
-
68

회의문자①



畿

경기(京畿) 기

畿자는 '경기'나 '경계', '서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畿자는 田(밭 전)자와 幾(기미 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幾자는 천을 짜는 베를 그린 것으로 '자주'나 '언저리', '가깝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畿자는 이렇게 '언저리'라는 뜻을 가진 幾자에 田자를 결합한 것으로 수도 인근의 지역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고대 중국에서는 수도를 중심으로 천 리 이내의 지역을 畿라 했다. 후에 수도가 담당하는 부근 지역을 통틀어 畿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기도(京畿道)도 그런 의미로 지어진 지명이다. 畿자에 田자가 쓰인 것은 수도 외곽은 중요한 곡창지대였기 때문이다.

小篆

해서

소전

해서



상형문자 ①

3(2)
-
69



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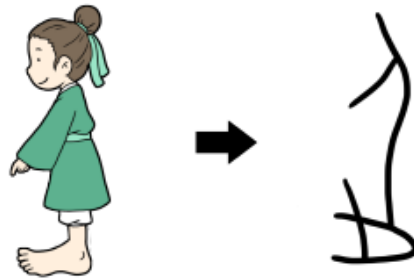
그 기

其자는 '그것'이나 '만약', '아마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其자는 대나무를 엮어 만든 '키'를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其자를 보면 열기설기 대나무를 엮어 만든 바구니가  그려져 있었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받침대를  그려 넣으면서 지금의 其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其자는 본래 '키'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나 '만약'과 같은 여러 의미로 가차(假借)되어 있다. 그래서 후에 竹(대나무 죽)자를 더한 箕(키 기)자가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3(2)
-
70



企

펼칠 기

企자는 '펼치다'나 '도모하다', '발돋움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企자는 人(사람 인)자와 止(발 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止자는 사람의 발을 그린 것으로 '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企자의 갑골문을 보면 사람의 발이 크게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위해 크게 '발돋움한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企자는 목표를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는 것을 의미에서 '계획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